



☆☆☆ 광주·전남 스타
☆☆☆ 2008 영광을 위하여

KIA 타이거즈 거포 최희섭



KIA의 최희섭이 지난 7일 무등경기장에서 실시된 합동훈련에서 밝은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직 V10 향해 백의종군”

美 개인훈련 마치고 예상보다 빨리 팀 훈련 합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회근한 방향이 담금질

“회근한 훈련으로 KIA 우승의 선봉을 맡는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29)이 지난 7일 팀 합동훈련에 모습을 드러내며 2008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당초 미국에서 개인훈련을 끝내고 바로 전지훈련지인 ‘팜’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일찌감치 귀국해 팀에 합류했다. 그만큼 올 시즌을 맞는 최희섭의 각오가 남다르다.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최희섭이 2007시즌 52경기에 출전해 거둔 성적은 타율0.337, 홈런7·타점46, 4번 타자 자리를 꿰차며 팀 공격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복귀와 동시에 부상으로 2달간 공백기를 거쳤고, 덩달아 팀 타선도 힘이 빠졌다.
112개의 홈런포를 날린 SK가 시원한

공격 야구로 ‘성적’과 ‘흥행’을 동시에 거머쥔 것과는 달리 최희섭의 성격으로 시즌을 마감한 KIA는 고작 73개의 홈런을 뽑아내는데 그쳤다. 팀홈런과 장타율(0.376)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KIA의 전신 ‘해태’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기억하는 팬들은 불박이 클린업 트리오 특히, 4번 타자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팬들이 ‘빅 초이’ 최희섭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키 196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메이저리거 출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상대투수는 압도된다.
최희섭은 플로리다 마린스 시절 홈구장인 프로플레이어스타디움(좌우115.9m·중간 123m)에서 3연타석 홈런을 날려 4번에 관중을 열광시켰던 ‘파워히터’다.

지난 시즌 130m짜리 대형홈런으로 광주구장에 설치된 길이 22m·폭 6.9m의 ‘그린포스터’를 넘긴 첫 타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국내 복귀 후 “메이저리그 풀타임 경험으로 국내 투수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만류 홈런왕은 물론, 올 시즌 40호 홈런 주인공 1순위로도 꼽힌다. 최근의 국내프로야구는 ‘타자투고’로 지난 4년간 홈런왕이 기록한 홈런은 34-35-26-31개에 불과했다.
메이저리거 최희섭에 이어 서재응도 가세하면서 KIA의 흥행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 연봉사감대상이었던 최희섭은 구단의 배려로 동결된 연봉(3억 5천만원)에 재계약해 자존심을 지켰다.
미국 LA에서 개인훈련을 하면서 지난 해 겪었던 파혼의 아픔을 다독였던 최희섭은 9일 52명의 선수단과 함께 ‘팜’으로 떠나 시즌을 대비한다.
최희섭은 “지난 해 한국야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겪었지만 올 시즌 홈런왕에 올라 거포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끝>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A 김병현 ‘새 등지 찾기’ 빨라질 듯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김병현(29·전 플로리다 말린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새 등지를 찾기 위한 입단 협상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현의 아버지 김연수씨는 8일 김병현이 전날 밤 8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알리지 않은 조용한 출국이

7일 밤 조용한 미국행
서부지구 두팀과 협상

김병현의 에이전트 스톱 보라스도 최근 “서부지구의 2개 팀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회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망이다.
자유계약선수(FA)인 김병현은 지난해 뛰었던 플로리다가 종전 연봉 250만달러에 부담을 느껴 새로운 팀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현의 에이전트 스톱 보라스도 최근 “서부지구의 2개 팀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회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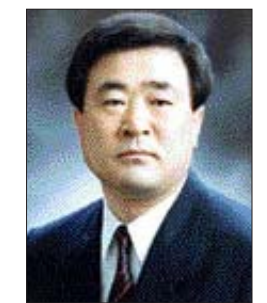
“KT 창단 환영...가입금 늘려야”

KBO 5시간 마라톤 이사회
신상우총재 “매각파문 책임”

프로야구 8개 구단이 KT의 신생팀 창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가입금 증액을 촉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08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 참여를 추진중인 KT의 가입부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창단 가입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이사회를 마친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8개 구단은 KT의 창단을 환영한다. 모든 야구인들과 국민이

열려했던 7개 구단 축소에서 벗어나 8개 구단을 유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사회 결의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는 “다만 지금까지 야구발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전 구단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O에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KT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요구한 ‘보다 성의있는 조치’는 사실상 가입금 증액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신상우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매끄럽지 못했던 일처리에 대해 사과한다. 구단의 권위에 상충을 입힌 점에 대해선 책임을 어떻게 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새 사무처장에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임명



서정복(59·사진) 전남축구협회 회장 겸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 8일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에 취임, 오는 2011년까지 도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8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33차 이사회에서 서정복씨를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주동식 도 관광문화국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해 오던 전남도체육회는 5개월여 만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됐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부회장이 30여년만에 폐지돼 사무처장 단일체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게 됐다.
서정복 신임 사무처장은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체육회 이사(1989년~2005년) 및 부회장(2005년~2008년),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초대 단장과 부사장, 전남축구협회장을 지냈고 광양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등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바꾼다

내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3억 투입...주차장도 설치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새롭게 단장된다.
광주시는 8일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3억원을 들여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및 주차장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트형으로 선수들의 부상과 지열(地熱) 상승 등 불편이 적지 않았던 기존 인조잔디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인조잔디로 교체된다.
시는 또 1977년 건립돼 노후화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등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한다. 그동안 경기장의 주차장이 좁아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무단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KIA구단에서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라커룸과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관중석을 전면 교체한다. 타구단 선수들을 위한 원정팀 샤워장도 새로 설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연봉 재계약 마무리
심재학 60% 깎인 1억원

KIA 타이거즈의 심재학이 지난 시즌보다 60% 삭감된 1억원에 재계약 했다.
2007 시즌 25경기에 출장해 타율 0.235, 4타점을 기록하며 부진했던 심재학은 대폭 삭감된 연봉에 도장을 찍고 9일 전지훈련에 합류하게 됐다.
FA를 선언했던 이재주도 이날 1년 계약 조건으로 지난해보다 20% 삭감된 8천만원에 도장을 찍고 팀에 잔류하기로 했다. KIA는 두 선수를 끝으로 자유계약 선수와 연봉 재계약자 55명과의 재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폰스링계
9일(수)
▲2008 ATP 테니스 쿠용 클래식(08:50·SBS스포츠)
▲2008 프로농구(오리온스:SK)(18:50·SBS스포츠), (KCC:모비스)(18:50·XSPORTS)
▲07/08 V리그 여자부(한국생명:도로공사)(16:30), 남자부(현대캐피탈:LIG)(19:00·KBS N SPORTS)
10일(목)
▲07/08 칼링컵 준결승 1차전(아스날:토트넘)(04:30·KBS N SPORTS)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원(남·48), 최영아(여·31))
개강 1월 7일 (주,야)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새롭 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합격률 전국 1위 =
개강 1월 7일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전남고시학원 236-2467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 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리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현대고시학원 062)222-6790

7급 공무원
= 겨울방학 대특강!! =
개강 1월 7일 (주,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222-4560

7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원생) 개강 2월 1일
9급 이론박수반 (2개월원생) 전직종 첫진도
한빛공무원학원 062)252-0252